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이 기간을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잘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위령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들은 하느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식의 불로소득으로 여기는 유산문화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요즘,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삶의 방식을 전해주는 유산나누기 운동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잔잔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유산’에 동참하는 방법

참여신청 및 문의

02. 727. 2294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첫째,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고인의 이름으로 조의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기부보험인 ‘천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사후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1599-생명살이(3042)

아름다운 유산

‘남은 재산을 의미있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식도 없이 남편과 함께 살다가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였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 보내고 나니 저도 주변을 하나 둘씩 정리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남은 재산을 의미있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례 1>

“딸의 이름으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와 사후에 받게 될 보험금 전부를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딸이 결혼하면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학생들을 보면 모두 제 딸 같아 보여요. 평소에 누구에게나 따듯했던 제 딸을 기억하며, 딸의 이름으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사례 3>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위해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임을 알기에 저희 자식들은 감히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네요. 여기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요. 형제들끼리 상의 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땀으로 만들어진 이 유산,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합니다. 분명 하늘에서 어머님도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사례 2>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유산기부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을 남기고 2009년 2월 선종하신 故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1922~2009)도 통장의 남은 잔고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병원에 기부하고, 또 당신의 각막까지 기증하고 빈손으로 하느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큰 가르침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유산을 기부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유산은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생명이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이 될 아름다운 유산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아름다운 유산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참여신청 및 문의

02. 727. 2294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첫째,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산 전부나 일부를 유산으로 기부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입니다. 개인의 부는 자신만의 노력이 아닌 사회의 도움을 통해 얻게 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위대한 유산 나누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부문화입니다.

둘째, 고인의 이름으로 조의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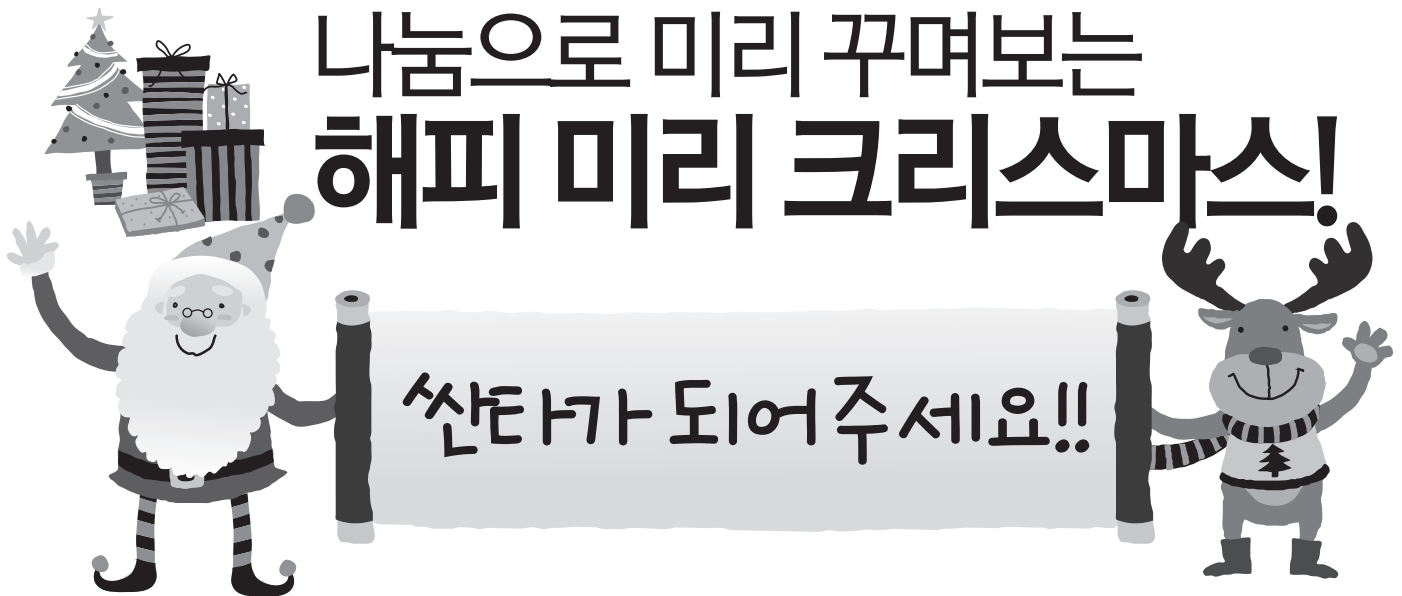
셋째, 기부보험인 ‘천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보험의 일종으로 평상시 정기적으로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금의 수혜자를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지정해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 대신 본부가 지원하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넷째, 사후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장기기증을 희망하신 당신의 고귀한 뜻은 이 땅에 남기고 갈 위대한 생명의 유산입니다.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1599-생명살이(3042)



독한 항암제 때문에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고 빠지고 빈혈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던 예은이도, 주사를 맞기 싫다고 눈이 통통 붓도록 울던 준상이도 오늘 만큼은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백혈병·난치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담요와 완치의 희망을 적어나갈 2013년 달력, 그리고 응원메시지를 적어넣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선물가방에 담아 **전국 19개 병원 소아병동 환아 1,400명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환아들에게 사랑의 산타가 되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세요.

- 1 12/14~24 전국 19개 병원 소아병동 환아 1,400여명에게 산타선물을 전달하고
- 2 2004년~2012년 본부 환아지원사업 통해 후원받은 환우 중 120여명에게 산타 선물을 전하며
- 3 12/14(금), 경기도 일산 '국립암센터' 환아들을 위한 산타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모금 기간은 11/1(화)~12/20(화)이구요, 선물1세트에 3만원입니다.
(1인당 2~3세트 이상도 가능하답니다) 전화나 후원계좌로 신청받습니다.
●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문의 02.774.3488**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예은이, 준상이 같이 백혈병·난치병으로 아파하는 환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2011년 442분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전국의 환아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51,914**명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2년 11월 8일 현재)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http://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140-001-982286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하나은행 850-910006-091104
외환은행 061-22-03709-4
※ 예금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온라인으로
장기기증 서약하기
www.obos3042.or.kr
참여문의
1599-생명살이(3042)



함께하는 사회사목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세계사형반대의 날 Cities For Life 행사

올해로 열한 번째 맞이하는 세계사형반대의 날은 이태리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St. Edigo라는 가톨릭 공동체에서 제안하여 International Day of "Cities for life, Cities against the Death Penalty"(세계사형반대의 날)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80개 국가 1000여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형반대 행사입니다.

- 일시 11월 30일(금) 오후 6시
- 장소 서울광장

“해밀”가족 모임 안내 범죄로 인해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한 달에 한번 함께 합니다.

- 문의 02.921.5093

월례미사에 초대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가톨릭회관에서 미사를 봉헌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사형수, 출소자 및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미사입니다.

- 일시 12월 3일(월) 오전 10시 20분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제6회 카리타스 자원봉사 나눔잔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5)을 기념하여 기념미사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장소 12.08.(토) 10:00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02.727.2248

제9회 김정나눔행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서울대교구 각 본당 내 무의탁 어르신, 소년소녀가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쌀과 김치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12월 2일(일) 09:00~14:00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2012년도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심포지엄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주제 한국 가톨릭 협동조합 운동과 사회적 기업
- 일시 12월 6일 (목) 오후 2시~5시
- 장소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신청 및 문의 02.727.2482~3
- csec@hanmail.net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7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기업 신청시 예쁘게 디자인된 현판과 전용 저금통,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현판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기업이 되려면 소정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1호점 서울 수색동 미성슈퍼
- 2호점 포항 득량동 손혜어
- 3호점 서울 반포동 산삼감정협회
- 4호점 서울 성수동 (주)이피코리아
- 5호점 서울 서초동 이미지넷
- 6호점 서울 필운동 (주)계문사
- 7호점 서울 대치동 예담명가
- 8호점 인천 원창동 참사랑성물
- 9호점 서울 신도림동 정유경심리치료연구소

- 10호점 서울 수서동 (주)원NB건축사사무소
- 11호점 수원 권선동 로사리오
- 12호점 서울 여의도동 명동칼국수
- 13호점 분당 서현동 소원정신과의원
- 14호점 서울 도림동 레인보우통신
- 15호점 서울 성수동 (주)유라스텍
- 16호점 대전 도동동 (주)명산
- 17호점 대전 만년동 (주)장어대가
- 18호점 서울 서교동 형광의 낙화, 눈

- 19호점 서울 수유동 토마토도시락
- 20호점 강원 평창읍 평창할인마트
- 21호점 전남 여주시 화장동 푸른농장 2호
- 22호점 전남 여주시 소라면 푸른농장 중립점
- 23호점 서울 신도림동 태영프라자약국
- 24호점 충북 청주시 고리의 영어학원
- 25호점 서울 동성동 하티헤어
- 26호점 서울 개봉동 주인공 개봉센터
- 27호점 서울 고덕동 미리엄약국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개인상담 및 유가족 자조모임

상담신청 및 문의 02.318.3079 사이버상담 www.3079.or.kr



생애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 구민채 (2011.10.12생 父 구세범/ 母 이소영),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이태나 에스텔 (2011.11.18생 父 이길파/ 母 고은지),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승혁 라파엘 (2011.10.17생 父 이기현/ 母 배주영),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한나에 데레사 (2011.10.10생 父 한상엽/ 母 문희경), 10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박제민 (2011.10.18생 父 박홍석/ 母 황은정),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태우 (2011.10.14생 父 김상환/ 母 장미지),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승준 (2011.10.20생 父 이재구/ 母 신지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서지성 다나엘 (2003.06.22생 父 서상근/ 母 서영순), 3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서희성 마르코 (2011.08.13생 父 서상근/ 母 서영순),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천유정 안젤라 (2009.10.19생 父 천정우/ 母 강재민),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천승민 베드로 다미아노 (2011.02.21생 父 천정우/ 母 강재민),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허희준 (1998.03.09생 父 허명욱/ 母 이남경), 2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허유민 (2000.11.30생 父 허명욱/ 母 이남경), 2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최맑음 (2011.11.07생 父 최생기/ 母 김경자),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연우 브루노 (2011.10.06생 父 정덕화/ 母 이은진), 돌잔치 1개(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최정서 마리아 (2012.01.01생 父 최근욱/ 母 한경준), (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김민준 루가 (2010.10.23생 父 김유진/ 母 강선호), 120,000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준호, 고민정 (2012.11.11 결혼기념일 父 고현수/ 母 박진호), 10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장시은 사도요한 (2010.10.25생 父 장덕원/ 母 조지은), 20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박찬욱 (2011.10.25생 父 박진서/ 母 김진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유안 (2012.07.19생 父 이종현/ 母 이미지),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다인 마리스텔라 (2012.06.07생 父 이규복/ 母 하주영),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전지안 (2011.10.20생 父 전성근/ 母 신경숙), 365,000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김민준 이나시오 (2011.10.27생 父 김기남/ 母 권혜란),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홍준수 다니엘 (2009.10.31생 父 박진욱/ 母 데레사), 5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하은 세라피나 (2011.11.06생 父 정택용/ 母 이승혜),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성은재 제마 (2011.11.01생 父 성동윤/ 母 임성민),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민준 (2011.11.10생 父 김창환/ 母 이인영),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원다혜 (2011.12.03생 父 원광희/ 母 이경아), 365,000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윤지현 (2012.08.01생 父 윤남진/ 母 김선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탁예지 레아 (2011.11.14생 父 탁정호/ 母 김세정),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지호 (2011.11.05생 父 김종길/ 母 고예진), 10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이을 그라시아 (2011.10.22생 父 이승만/ 母 나혜선),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300번째 김민준 이나시오 가족

올해 생애첫기부 300번째 가족이 탄생했어요. “나눔 수 있어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민준이가 커서 감사해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기남 비요(김민준 아기)